

국립공원관리, 山林廳전담主張도

林政심포지엄서 · 山林경영자 보호촉구

○...지난 10. 18. 산림청 임업연구원이 주최한 세종문화회관서의 「21세기 林政심포지엄」에는 학계, 임업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했다는데. 이날 토론참석자들은 특히 국립공원 등의 관리는 山林과 土地의 효율적 生態系조절을 위해 山林廳이 專擔해야 하며 앞으로 民有林 확대에 對備 山林行政도 國有林 · 民有林으로 區分할 것을 主張.

○...또 이날 심포지엄서는 都市民의 食水를 공급하는 水源林이나 公害防止機能을 갖는 大都市 인접山林에 대해선 受益者負擔 原則에 따라 水源稅 등 租稅體系를 導入, 山林經營者에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는 것(10.19. 한국일보).

공원관리공단은 동네북인가?

○...누가 전담해야만 과연 효율적인 국립공원 등의 관리가 잘될 것인지는 주장하는 부처마다 말만은 다채로와 일반국민들은 어리둥절한 얘기들. 내무부 산하의 각 시·도에 위임관리 시켰다가 관리체제가 고르지 않은데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 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취약점으로 86년 12월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87년 7월 1일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탄생되어 관련기관(내무·보사·농수산·체육·환경청·산림청·각 시·도)의 협력 아래 땀 흘려 일해온지 겨우 2년여... 환경청이 내년 1월에 「처」로 승격되면 국립공원 등 관리가 이관될 것이라는 소문이 한창 나오나 내무부가 해야한다는 반박소리도 들리더니 이젠 山林廳까지 끼었으니 무슨 꿍꿍이 속인지 政府는 真相을 밝혀주길 고대해 본다.

바다생선에도 寄生蟲?

人體조직 마구파괴 · 任敬一 교수팀주장

○...민물고기(淡水魚)에만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

생충이 바다생선(海水魚)에도 있다는 쇼킹한 사실이 학회에 보고되었다고 지난 10. 29. 매스콤에서 보도.

○...「아니사키증」이라 불리는 이 寄生蟲은 일단 체내에 들어가면 人體의 어느부위든지 뚫고 들어가 조직을 파괴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사실은 延世大 醫大 기생충학교실의 任敬一 교수팀이 최근 濟州道의 文勝一 내과의원에 의뢰, 2년동안 회를 먹고 복통을 일으켜 來院한 환자가운데 39件의 「아니사키증」을 발견함으로써 밝혀졌다.

○...연구팀이 이를 임상분석한 결과 上腹部痛症을 主症狀으로 호소해온 환자가 31건으로 가장 많다고...

과거 淡水魚生食여부 가려야.....

○...이같은 보도내용으로는 과연 來院환자들이 바다생선만 常食한 것인지 요즘 전국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각종 淡水魚의 회도 함께 먹었는지 分別하기 어렵고 임상분석에서 전혀 淡水魚의 회를 먹은 사실이 없다면 「아니사키증」의 寄生蟲이 棲息한 海水魚가 무엇인지 좀더 냉철한 분석연구가 기대되며 한국연안수산업의 장래를 위해 濟州大나 水產大 그리고 학계·관계기관이 진지하게 조사해야할 큰 숙제가 아닐까?

비행기날개서 얼음덩어리가 떨어진다면?

○...지난 10월 20일 오전 7시 40분경 경기도 平澤市 竹柏洞 619의 1大林산업 아스콘工場 食堂 함석지붕(두께 1.2mm)을 뚫고 가로·세로 각 1m, 두께 60cm, 무게 6kg 가량되는 얼음덩어리가 주방에 떨어진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지 후문이 없다.

○...이 소동으로 주방 안의 대형 스테인리스찬장이 부서지고 유리그릇 20여개가 박살나고 식당서 일하던 李모씨(50·여)가 실신해 병원서 치료를 받았다는데 「우박이 내린 적도 없고 비행기 날개부위에 붙었던 얼음이 떨어진 것 같다」는 水原측후소측의 견해가 사실이면 이같은 事故의 豫防策은 누가 세워야할 것인지?(香)